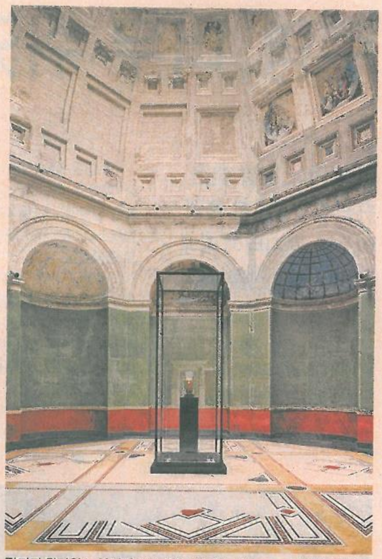
munhwa.com
문화일보

공공건물 텅빈 공간서 ‘시간의 흐름’ 을 찍다

November 30, 2011 I 신세미 기자



칸디다 회퍼의 노이에미술관 ‘북쪽 돔 홀’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

공공건물 텅빈 공간서 ‘시간의 흐름’ 을 찍다

칸디다 회퍼 사진전…내달 25일까지

사람이라곤 없는 공공건물의 텅 빈 내부공간을 주목했다. 광각렌즈를 사용해 넓은 공간의 정면을 담아낸 사진에선 건물 구조뿐 아니라 묘하게 시간의 흐름, 사람의 흔적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유럽 문화공간을 촬영한 작품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67)의 사진이다. 박물관, 극장, 궁전, 교회 등 건물 사진으로 유명한 회퍼가 국제갤러리에서 12월25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을 통해 ‘노이에미술관 시리즈’를 발표한다.

전시작은 회퍼가 1999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노이에미술관에서 2009년 작업한 사진들이다. 기원전 1340년대 고대이집트의 네페르티티여왕 두상이 안치돼 있는 공간을 촬영한 ‘북쪽 돔 홀’에선 기하학적 무늬의 바닥, 빨강 초록의 보색 대비가 두드러지는 벽과 그리스신화의 영웅등을 그린 벽화 등이 독특한 시공간을 이뤄낸다. 인공조명 없이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선으로 작업한 사진들이다.

로마 조각, 이집트 유물부터 폼페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 미술관의 사진은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듯 관람객을 색다른 시간여행으로 이끈다.

사진 속 노이에미술관은 19세기 중반 18년에 걸쳐 완공된 프러시안 건축 양식의 건물. 동독지역에 자리 잡은 이 미술관은 2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파괴됐다가 통독 후 1997년 복원설계 공모를 통해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복원돼 2009년 재개관됐다. 미술관 측으로부터 사진작업을 의뢰받은 회퍼는 건축가 치퍼필드와의 공조를 통해, 건물 본래의 양식과 더불어 전쟁 그리고 양분됐던 동서독 체제의 상흔까지 담아냈다.

회퍼는 뒤셀도르프미술대학 출신으로 영화학도 시절을 거쳐, 1976년 개설된 사진작가 베른트 베허의 문하에서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루프, 토마스 슈트루트 등 현대 독일 사진 거장들과 동문수학했다. 2002년 로댕의 조각 ‘칼레의 시민’ 12점이 설치돼 있는 소장처를 방문해 촬영한 시리즈 및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했고, 2006년 루브르박물관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전을 가졌다. 신세미기자 ssemi@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30010324300480003